“기술지원은 산재 예방의 디딤돌”

창원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 장창환 선임과장

글·사진 정보성 창원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창원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 장창환 선임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의 전문가다. 2010년에 입사해 2011년부터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75개소에 600회의 기술지원을 했다. 업무수행능력평가에서의 A등급을 받을 정도로 탁월한 성과를 발휘하며,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는 가치관으로 업무의 몰입감을 높인다. 올해 벌써 200개소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다.

장창환 과장이 처음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할 때만 해도 협회의 민간위탁사업이 적었다. 그러나 지금은 ‘안전패트롤’,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 등의 종류가 늘었고 기술지원사업은 오롯이 장창환 과장의 몫이 되었다. 혼자서 많은 일을 수행해야 하는 까닭에 업무 피로가 높고 외로움도 종종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그 피로감은 현장의 한 마디에 이내 가신다.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이 방문조차 귀찮아하는 곳이 많은데요. 하지만 방문 시 정말 도움됐다, 다음에 또 방문해달라는 반응도 있어요. 먼 길 달려 찾아간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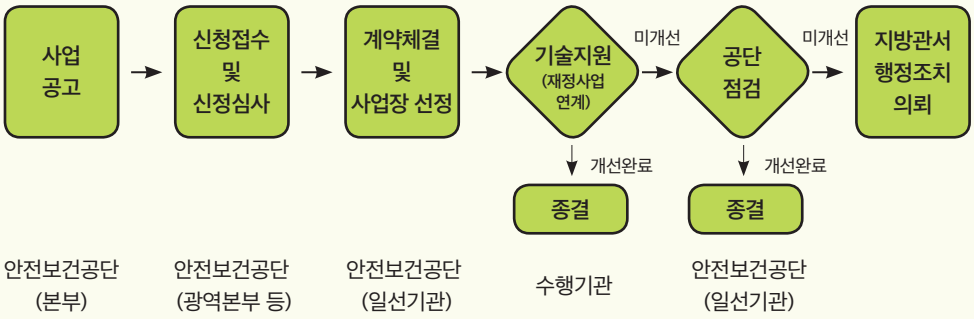
그가 하루 평균 찾는 사업장의 개수는 6곳. 경남지역 전체가 그의 관할 구역이다. 남쪽으로는 거제, 통영, 서쪽으로는 거창, 합천, 하동 등을 다녀야 한다. 건설현장, 부직포 제조업, 육가공매장, 화장품매장 등 업종도 다양하며, 대부분 제대로 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곳이다. 까닭에 장창환 과장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발걸음이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의 디딤돌이 된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는 현장에 선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 취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영세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중심의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지원사업장의 보건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업무상질병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종합지원이다.

■ 추진 절차



■ 기술지원 내용

보건지원

-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안내
- 사업장 보건업무관리자 선정
- 산업재해 발생 현황관리
- 적정 보호구 선정 지도
- 기술자료 보급 및 활용 지도
- 성과지표 관리
- 기타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 작업환경관리실태 및 공정 파악
- MSDS 작성 지도 및 정보 제공
- 산업환기시설 점검 및 공학적인 개선 지도
-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작업환경관리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지도
-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유소견자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지도 및 안내
- 위험성평가 실시 안내 및 지도